



자유주의 정보 20-26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ug Bandow,

How the Prague Spring Led to the Fall of Communism

19 January, 2020

### 프라하의 봄: 공산주의 몰락의 신호탄

1968년 1월, 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1월 5일, 알렉산데르 둡체크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 1서기로 선출되었다. 20년간의 무자비한 공산 통치 이후, 변화에 대한 희망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 둥체크의 탈중앙화와 자유화

공산 통치 하의 경기 침체는 변화를 유도하였다. 1965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국가 통제를 한 단계 낮춘 신경제 모델을 채택했다. 또한, 둡체크가 권력을 잡은 이후, 그는 탈중앙화와 자유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되었다. 동시에 언론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의 자유들도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

둥체크는 그의 목표가 "건실한 경제 위에 선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 천명하였다. 물론, 소련이 헝가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을 교훈 삼아 모스크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바르샤바 조약에 계속 남아있기도 하였다.

#### "인간미를 가진 사회주의"

이후, 둡체크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고, 민주주의라 부르지는 못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시민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당연하게도 소련은 이러한 변화를 우려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자들과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둡체크는 겉으로 보기에 필요한 모든 양보를 하였다. 바르샤바 조약

에 잔류할 것을 약속했으며, 야당의 활동을 저지할 것과 언론을 통제할 것, 그리고 “반 사회주의” 시류를 제한할 것임을 약속했다.

### **인간미가 없는 소련식 사회주의**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한 소련은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에서 지원받은 50만의 병력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였다. 소련의 개입은 인간미가 결여된 사회주의의 회복을 불러왔다. 둠체크는 실각하였으며 공산주의의 잔혹한 통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 **프라하의 봄**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87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프라하의 봄이 시작되었다. 1989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당년 11월 20일, 50만의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프라하 거리를 메웠고, 공산 통치의 종말을 이뤄내었다.

이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시나트라 독트린”을 시행하여 동유럽인들의 자치를 허용하였고, 공산주의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련의 해체를 이루어 내었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the-prague-spring-led-to-the-fall-of-communism/>